이븐오브데이 "사운드제한극복위해전자음활용"

JYP 밴드 '데이식스(DAY6)', 데뷔 5년만에 첫유닛 선보여이번 앨범 주제어 '강력'…"멤버들 끌어당기는 힘은 '음악'"

JYP엔터테인먼트의 밴드 '데이식스 (DAY6)'가 데뷔 5년 만에 첫 유닛(그룹 내그룹)을 선보인다.

데이식스 멤버 영케이(강영현), 원필, 도 운으로 구성된 유닛 '이븐 오브 데이(Even of Day)'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첫 번째 앨범 '더 북 어스 : 글루온(The book of us : Gluon)'을 공개했다.

'이븐 오브 데이'는 JYP 수장 박진영이 '밤'을 의미하는 영어 고어 '이븐(even)'에 착안해 '이븐(even)' 이후 '데이(day)'가 다 가온다는 의미를 담아지었다.

JYP는 "깊고 어두운 밤을 건너 마침내 밝은 날을 마주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희 망찬 에너지를 노래하겠다는 포부를 실었다"고 소개했다.

'더 북 어스: 글루온'은 이븐 오브 데이의 첫 작품이자, 데이식스가 작년부터 전개한 '더 북 오브 어스(The Book of Us)'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첫 번째 페이지 '더 북 오브 어스 : 그래 비티'는 끌림을 말했고, '더 북 어스 : 엔트 로피'를는 일상을 무질서하게 바꿔버린 달 콤한 혼란을 노래했다. '더 북스 오브 어스 : 더 디먼(The Demon)'에서는 감정의 불균형 으로 마주하게 된 공허함을 토하며 리스너 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JYP는 "이번에는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 하는 입자의 물리학 명칭 '글루온'을 차용한 앨범 '더 북 오브 어스 : 글루온'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을 속삭인다"고 전했 다

이날 JYP를 통해 이븐 오브 데이는 데이 식스와의 차별점에 대해 "악기 구성과 음악 에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영케이는 "드 럼과 건반을 각각 전자 드럼과 신스 위주로 진행했다. 베이스는 본연의 역할과 일렉기 타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폭넓은 표현법을 구사했다. 멜로디와 가사 부분은 DAY6의 감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을 택했다"고 부연했다.

도운은 "데이식스 완전체가 아닌 3명이 곡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운드 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 사운드를 활 용했다"고 전했다.

유닛 멤버 중 기타 연주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주 멜로디 악기인 기타의 부재 를 어떻게 채웠는지 묻자 원필은 "신스 사 운드를 많이 썼다"고 답했다. "베이스는 톤 을 변화시켜서 기타 사운드처럼 바꿨고 사 운드적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다" 는 것이다.

도운은 "기타 소리를 채우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였다. 사운드를 좀 더 일렉트로닉하게 만들어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팬들이 멤버들 이름을 따서 이번 유닛을 '강원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케이는 "박진영 PD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멋있다면 '강원도'는 신박하기도 하고 팬분들이 지어준 애칭이라 마음이 간다"고 즐거워했다. 원필은 "듣자마자 '강원도'라는 구수한 이름이 정말 귀엽고 재밌었다. 유닛명은 'DAY6(Even of Day)'가, 애칭은 '강원도'가최고"라고 강조했다.

이번 앨범 메시지에 대해 원필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서로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과어떤 것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도운은 "그 어떤 힘든 상황을 직면해도 '우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앨범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앨범 속 트랙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같다. 영케이는 "데니멀즈(DENIMALZ: 데이식스 캐릭터)가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프로듀서인 (홍)지상이형이 처음 제안했다"고 귀띔했다.

"'데니멀즈가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착륙하고 깊어지는 감정을 겪으며 마침내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 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이번 앨범의 주제어는 '강력'(Gluon)이다. 이븐 오브 데이 멤버들을 강력하게 끌어당 기는 힘을 묻자 영케이는 "음악"이라고 답 했다. "멤버들 모두 생활 패턴, 관심사, 스타 일도 각자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다. 그러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다 같이 눈이 반짝반짝해진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서 로 다르지만, 각자의 진지함이 있어 항상 흥 미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원필은 "'마이 데이(My Day)(팬덤). 팬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에너지가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긴다"고, 도운은 "언제어디서나 보내주시는 팬분들의 무한한 애정과 응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떤 순간 멤버들과 가장 강하게 뭉쳐져 있는 것 같다고 느끼나고 물었다. :무대 위, 특히 우리의 콘서트를 할 때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간에서 에너지 를 끌고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합을 맞 출 때 가장 강하게 뭉쳐있는 것 같다." (영케이)

이효리, 이상순에 "소유 왜 검색했어?" 질투심 폭발

'페이스아이디' 오늘 첫 공개…총 4회 걸쳐 리얼 라이프 공개



'페이스아이디' 이효리가 이상순의 스마트 폰을 급습, 한밤중 질투의 화신으로 변한 영 상이 공개됐다.

오늘 첫 공개되는 카카오엠 모바일 라이 프 리얼리티 '페이스아이디(FACE ID)'는 한 밤중 질투에 휩싸인 이효리와 당황한 이상 순의 묘한 기류를 담은 1회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이효 리는 한밤중 남편 이상순의 스마트폰을 급 습, 검열에 나섰다.

"오빠는 이제 딱 걸렸어"라고 말한 이효리는 이상순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론 SNS의 추천 영상과 검색어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이어 소유와 트와이스 나연의 댄스 퍼포

먼스가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한 이 효리는 "소유 왜 검색했어?", "트와이스 나 연 수박 퍼포먼스는 왜 나오는 거야?"라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편하게 누운 채 방심하고 있던 이상순은 이효리의 질문 공세에 표정이 급변하며 긴 장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 냈다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이효리 옆에서 쩔쩔매며 "검색한 적 없는데…"라며 말끝을 흐리고, 이효리와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아내의 단속에 눈치를 보는 일반적인 남편의 모습이 재미를 더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순의 스마트폰 화면이 고스란히 노출 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스타의 리얼 라이프'라는 신개념 모바일 리얼리티 '페이 스아이디'의 색다른 재미를 예고했다.

'페이스아이디'는 스타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공 개,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그들의 소소한 일 상을 담은 신개념 모바일 라이프 리얼리티

첫 주자로 나선 이효리는 총 4회에 걸쳐 솔직 유쾌한 리얼 라이프를 공개할 예정이 다.

아이유,전국 간호사들에 아이스 조끼 지원

1억원 상당 4600벌 기탁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 는 전국의 간호사들에게 아이스조끼를 지 원했다.

지난달 31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아이유는 이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아이스조끼 4600벌을 기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아이유에게 기증받은 아이스조끼를 코로나19 현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더위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을 위해 전 국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월부터 국가지정 병원과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에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응원 물품을 전달해왔다.

한편 아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억원을 기부했고, 3월에는 경기 양평군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블랙핑크, 'MTV VMA'서 수상…K팝 걸그룹 최초

미국 진출 1년 만에 이뤄낸 성과…쟁쟁한 글로벌스타 재쳐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권위 있는 음 악 시상식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 즈(VMA)'에서 K팝 걸그룹 최초의 트로피 를 품에 안았다. 미국 진출 1년 만에 이뤄 낸 성과다.

블랙핑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 린 '2020 MTV VMA'에서 지난 6월 선 보인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올여름 최고의 곡(Song Of The Summer)' 수상자로 선정됐다.

카디비의 'WAP', DJ 칼리드의 '팝스타 (Popstar)', 두아 리파의 '브레이크 마이 하트(Break My Heart)' 등 쟁쟁한 글로벌 스타들의 히트곡을 제친 쾌거다.

이 상은 2013년 신설된 이래 원 다이렉

선, 파이브 세컨즈 오브 썸머, 피프스 하 모니, 릴 우지 버트, 카디비·배드 버니·제 이 발빈, 아리아나 그란데·소셜 하우스가 받았다.

특히 블랙핑크는 미국 4대 주요 대중음 악시상식으로 통하는 'MTV VAM' 사상 처음으로 '올여름 최고의 곡'을 차지한 아 시안 걸그룹이라는 역사도 썼다.

특히 1984년부터 개최돼 전통을 자랑하는 'MTV VMA'에서 그간 걸그룹이 상을 받은 기록 자체가 손에 꼽힌다. 전설의미국 걸그룹 TLC를 비롯해 데스티니스차일드, 푸시캣돌스, 스파이스걸스, 피프스하모니 등 손에 꼽는다.

블랙핑크는 '올여름 최고의 곡' 부문뿐

아닌 '베스트 그룹(Best Group)' 후보에도 올라 존재감을 뽐냈다.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는 지난 6월 28일 공개돼 큰 인기를 끌며 당시 유튜브에서 '24시간 내 최다 조회수 동영상' 등 여러 세계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후 약 32시간 만에 1억뷰, 7일만에 2억뷰, 21일만에 3억뷰, 43일만에 4억뷰를 차례로 돌파하며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역대 최단 시간 기록을 세웠다.

또한 해외차트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유의미한 성적을 냈다.

이곡은 발매되자마자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올 킬'은 물론 아이튠즈 전 세계 64 개국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영국 오피 셜 싱글 톱100서 20위, 미국 빌보드 핫 100서 33위에 올려놓으며 K팝 걸그룹 신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BTS, 'MTV비디오뮤직어워즈' 4관왕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2020 MTV 비 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이 시상식에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의 타이틀곡 '온(ON)'으로 베 스트 안무(BEST CHOREOGRAPHY)상 을 받았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온'으로 베스트 팝 (BEST POP) 상도 받았다.

시상식 전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먼저 공개한 베스트 그룹(BEST GROUP), 베스트 케이팝(BEST K-POP) 부문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이날 후보에 오른 4개 부문의 트로피를 모두 가져가 는 쾌거를 거뒀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아미에게 위로 를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세계를 휩쓸고 있

는 신곡 '다이너마이트' 첫 무대도 선보 였다. 서울에서 이원 생중계된 무대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복고풍 수트를 입 고 등장했다.

화려한 뉴욕을 담은 스크린을 배경으로 흥겨운 디스코를 추며 경쾌한 무대를 선사했다.

자로 잰 듯한 기존 칼군무에서 대신 자유분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방탄소년단이 VMA 시상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해당 시상식에서 베스트그룹 상과 베스트K팝 등 2관왕을 안았으나, 데뷔 이후 첫 장기휴가라 불참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4대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에 모두 참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4대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모두 출연했다.

뉴시스